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하니... 목포 원도심 재생사업 활기

도시재생대학·마을학교 5년간 11개 과정 운영 229명 수료생 배출 주민 스스로 현안 발굴·대안 제시...창업 늘고 도시재생 이해도 높여

목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 주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목포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진행한 지역역량강화 교육이 최근 5년간 2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6일 밝혔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목포시는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를 진행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 교육인 도시재생대학과 마을학교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했다. 이 교육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지역에서 창업을 늘리고, 주민들의 도시재생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근 5년간 11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도시재생대학은 그동안 8차례 진행했다. 주민 스스로 도시의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마을 의제 발굴과 주민협의체 구축,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도시재생사업·가로경관

디자인 이해,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마을해설사 기초교육, 지역 브랜드와 지역 상권 이해, 소셜마케팅 교육, 사회적 경제 이론 등이다.

마을학교는 도시재생대학의 이론적 교육에 더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교육으로 구성했다.

홍보영상 제작 방법, 목공예·원에 기술, 재활용품을 새롭게 활용하는 수공예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목포시는 내년 1월 마지막 교육과정인 4기 마을학교를 개강한다. 이 교육에서는 마을기록자를 양성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 교육에서 최근 5년간 2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주민들이 마을학교 수업을 듣는 모습. <목포시 제공>

영암 옥야리 고분 발굴조사서 마한 목관·옹관 확인

군, 자문위 열고 18호분 부장품 보고

마한 대표 유적인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고분군(18호분) 발굴조사에서 목관 2기, 옹관 2기, 석곽 2기를 확인했다.

고대문화재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발굴 조사 결과를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18호분은 앞서 조사된 17, 19호분에 비해 목관 2기가 가장 밑에 조성되고 그 위에 옹관과 석곽을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1호 목관의 머릿부분에서 깃발에다는 장식품인 금동제이식(金銅製耳飾) 한 쌍이 장식고리까지 남아있는 상태로 발굴됐고, 그 밑에서는 목이 긴 항아리인 장경호(長頸壺)가 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2호 석곽은 바닥석을 조성한 후 편평한 석제 4장을 이용해 벽을 축조했다.

석곽 내벽은 붉은 칠을 했고, 바닥에서는 목이 짧은 항아리 단경호(短頸壺)와 철기류가 발굴됐다. 1993년 조사해 고분 중심으로 목관이 안치된 것이 확인된 '영암 신연리 9호분'과 비슷한 양식이다.

영암은 다수의 고분이 집중분포해 고대 마한이 성장하고 그 세력이 자리했던 중심 지역으로, 그 중 옥야리 고분군은 3~6세기 고분 28기가 분포해 밀집도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주변에는 당시 최고 권력층 또는 귀족층의 무덤



우승희(왼쪽 세번째) 영암군수가 시종면 옥야리 고분군(18호분) 발굴조사 현장에서 고대문화재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영암군 제공>

인 '영암 내동리 쌍무덤', '옥야리 방대형고분', '신연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 시기 대형고분은 한 고분(분구)에 석실묘·석곽묘·옹관묘·토광묘 등 여러 매장시설이 다량(多葬)돼 흔히 '아파트형고분'이라 불린다.

고대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옥야리 18호분에

서 나온 다양한 자료는 추가 발굴할 옥야리 고분군과 영암 일대의 다른 고분군과 비교해 각 고분 간의 선후·혈연·지위관계와 함께 당시 마한의 중심지로서 그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 기능성 항암쌀 176t 첫 수확

미네랄 활용 유기농 탄소치유농법 재배...90% 이상 항암성분 검출

영암에서 기능성 항암쌀 176t을 첫 수확해 선보였다.

기능성 항암쌀은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활용해 유기농 탄소치유농법으로 벼를 재배한다. 일반 쌀보다 항암 효과가 있는 파이토키밀 쿨 수치가 높아 인기 속에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영암군은 항암쌀 계약재배를 위해 친환경 벼 재배단지 30.8ha를 시범 선정하고, 19농가의 참여를 유도했다.

군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재배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8-9월 시범 재배단지에서 이온 미네랄을 살포했다.

10월 기능성 쌀 재배를 총괄한 영암농농협은 재배농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선진지견학을 실시해 재배 노하우도 공유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재배한 쌀의 성분검사는 11월 실시한 결과, 생산량의 90%가 넘는 양에서 항암 기능성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자연드림은 이달 초 영암군의 항암쌀 전체를 시중 유기농 쌀 수매가의 110% 수준으로 매입했고, 앞으로 아이쿱생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기능성 쌀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고, 군 내 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항암쌀 등 다양한 기능성 쌀의 생산을 확대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가소득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남에서 기능성 쌀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 곳은 영암군을 포함해 해남군·신안군·구례군·곡성군이며, 농가재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한 곳은 영암군이 유일하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광군, 공원·도로 개설 예산 23억 확보

강종만 군수 노력 결실...교량 가설 등 4개 사업



강종만(왼쪽) 영광군수가 국회를 찾아 국고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가 민선 8기 들어 활발하게 펼친 국고 예산 확보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영광군은 민선 8기 들어 2022년 하반기부터 누적 12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4개 사업으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8억원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정비공사 7억원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노후위협교량 오통2교 재가설 공사 등이다.

영광 공설추모공원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근남면 대덕리에 자연정지와 봉안당 조성되며

지금까지 타 지역의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정비는 군도 24호선 1.25km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해 내년 개최 예정인 전남체전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영광읍사무소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은 영광읍 사무소에서 영광성당 뒤편까지 소로 100m를 신규 개설해 주민들의 통행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노후위협교량 오통2교 재가설은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재해예방을 위해 국고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환 기자 kcw@kwangju.co.kr

목포 범죄 피해자 아픔 녹이는 '사랑의 연탄'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 봉사단 유달동에 300만원 상당 물품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최혁)과 목포 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이혁영)는 최근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난방 지원을 했다.

봉사단은 검찰청 직원과 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지난 5일 오전 목포시 유달동 골목을 찾아 이웃들에게 연탄 300장을 배당했다.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6가구를 위해서는 난방용 유류와 쌀·라면 등을 전했다. 봉사단이 전한 물품은 모두 300만원 상당이다.

최혁 지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것을 기약한다"고 말했다.

이혁영 이사장은 "검찰청 직원과 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 자원 봉사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한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웃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목포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가 지난 5일 목포시 유달동에서 사랑의 연탄·난방유 나눔 봉사를 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목포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와 정신적 경

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무안군 "육아 환경 조성해 인구 감소 대응"

'무안형 키즈카페'·'24시간 아이 돌봄' 정책사업 검토

무안군이 인구 대책의 하나로 '무안형 키즈카페' '24시간 아이 돌봄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검토했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무안군 인구감소 위기를 공감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모

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훈 무안군 부군수와 무안군의회의원, 지역대학 교수, 사회단체 위원, 실과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안군 인구 현황과 인구 감소 원인 등을 분석했다.

다른 자치단체 인구정책 주요 사례를 검토하고 인구교육 자료 영상 시청, 안전 발표, 자유 토론 등도 진행했다.

위원들은 무안형 키즈카페와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 고품격 일자리사업, 정주 여건 조성, 청년 선호일자리 창출 등을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제안했다. 또 스포츠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단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돼 군정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인구정책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진민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농가에 고체미생물·꿀벌 공급

내년 농촌진흥청공모사업 선정 54억 사업비 확보

진도군이 2024년 농촌진흥청공모사업에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 30억원과 '꿀벌자원육성품종사업' 24억원 등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체유용미생물 구축사업은 토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체형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기술을 적용, 자동장비 체계 제작·설치부터 준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군은 이번 사업으로 4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해 노지작물 재배시 농가충분히 사용

할 수 있는 고체미생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꿀벌자원육성품종 구축사업은 꿀벌 집단폐사 등에 따른 농업생태계를 바로 잡고 국내 육성 신종 우수 꿀벌(원여왕벌)을 집중 증식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수밀력, 산란력, 질병저항성, 봉산물 다수확 능력이 우수한 꿀벌 품종을 개발해 전국 양봉농가에 우량 여왕벌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